地理學論叢 第31號(1998. 2), 1-15.

大學과 地域社會의 結合에 관한 制度 分析*

- 독일의 대학도시 뮌스터를 사례로 -

朴英漢**

Institutional Analysis on the Linkages between University and Local Community

-A case study of Münster in the northern Germany-

Young-Han Park

요약 : 본 연구는 해외지역연구의 관점에서 독일의 뮌스터를 사례로 대학과 지역사회간의 연계망을 고찰하기 위하여 制度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대학의 교수·연구 및 봉사기능의 지역사회로의 移轉過程과 그것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다. 교수기능의 知識移轉으로는 성인교육과 대학청강제도가 복합된 '中老年層大學正規教科受講制度'가 분석되었다. 뮌스터에서의 硏究 및 技術移轉過程은 대학기관인 '硏究移轉室'에서부터 혁신기업의 보육단계인 '技術庭園'이라 불리는 기술이전센터를 거쳐 '技術公園'이라 일컫는 기술단지에 이르는 3단계로 이루어졌다. 대학의 봉사기능의 사례로 선정된 대학도서관은 지역사회주민에게 각종 문헌을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으로 地域정보센터의 구실을 수행한다. 그 외에도 대학과 행정당국간에는 상호발전을 위한 대화모임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정착으로 뮌스터는 대학과 지역간의 체계적·항구적 연계망이 형성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어: 知識移轉, 硏究移轉室, 技術庭園(技術移轉센터), 技術公園(技術團地), 地域情報센터

Abstract : This article examines the institutional analysis to find the linkages between university and local community.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of the university is knowledge transfer. 'The Study Programme for Senior Citizens(Studium im Alter)' is the institution mixing programme of adult education and guest students. The attendants choose lectures in the University and get new information without examination or any other pressure. Innovative information transfer between university research and industry in the region took three phases; Center for the Research Transfer(die Arbeitsstelle Forschungstransfer: AFO), Technology Transfer Center or Technology Garden(Technologiehof) and Technology Park(Technologiepark). The University and Regional Library(die Universitäts-und Landesbibliothek: ULB), as the regional information service center, plays also a great role in providing information to the residents in Münster and the neighbouring area. The Coordinator Group between University and City government is opened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Key Words: knowledge transfer, Center for the Research Transfer(die Arbeitsstelle Forschungstransfer: AFO), Technology Garden(Technologiehof, Technology Transfer Center), Technology Park(Technologiepark), The University and Regional Library(die Universitäts-und Landesbibliothek: ULB)

---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95 해외연구특별지원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지식사회·정보화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는 21세기에는 대학의 위상이 오늘날의 산업사회보다 훨씬 높아질 전망이며, 대학의 기능도 더욱더 강화될 추세에 있다. 선진제국에서는 대학이 상아탑에만 안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대학은 전문인력의 양성과 함께 대학이 보유한 고급인력과 시설 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재고시킬 수 있는 혁신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에 있어서 대학과 지역사회를 결합시키는 연계망으로서의 制度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를 밝혀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대학이 지역사회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밝히는 동시에 대학 조직의 강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준다. 독일은 197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산업사회로부터 지식·정보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구조조정기를 맞이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재배치와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문제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으며, 대학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立地要因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대학은 전문인력의 양성과 연구축적을 바탕으로 경제주체에 양질의 노동력과 기술을 제공하는 공급원으로 기능함에 따라 사회변동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주요기관으로 재등장하였다. 이처럼 대학이 지역사회발전의 추진체로 인식됨으로써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망을 통한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Giese, E, 1987, 25-28).

1960년대에는 전후 베이비붐과 연관된 출생률의 급증으로 대학증설이 불가피하였으며, 경제성장과 더불은 고급인력의 수요팽창에도 불구하고 적정수준의 대학졸업자를 배출하지 못한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교육위기는 물론 경제위기로 치닫게 되고, 결국 교육개혁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1960년대 후반기부터 교육기회의 균등화와 양질의 노동력의 확보가 학계의 주요연구과제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의 입지선정과 교육기회에 관한 연구가 Geißler(1965)와 Geipel(1965)을 위시한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197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신설대학과 이의 파급효과는 교육정책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지역경제·공간정책 분야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예를 들면, 대학예산의 지출과 대학생의 소비 성향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교육경제학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를 비롯하여, 대학이 지역의 경제적 요인으로 인식됨으로써 경제취약지역의 발전동인으로서 신설대학의 입지에 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1980년을 전후하여 산업구조의 조정기를 맞이한 독일에서 대학은 그들이 지닌 지식 및 기술을 토대로 '지역혁신요인으로서의 대학'으로 그 역할이 변모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학과 지역사회간의 연계는 교육경제학적 측면을 넘어서서 대학의 기술 및 연구성과를 지역사회의 기업에 이전하는 산학협동의 양상을 띠었으며, 이에 관한 연구가 1980년대 말 이후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이 지닌 각종 노하우 및 기술정보와 고급기술인력을 지역사회에 제공함으로써 대학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와 대학이 첨단기술지향적인 기업체를 지역사회에 유인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전되고 있다(Ott, T, 1993; Fromhold-Eisebirth, M, 1992, 29-37). 이와 더불어,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망을 조직적이고 영속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제도에 관한 연구도 1990년대 초기부터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Deilmann, 1995, 93-106).

오늘날 대학은 지역사회의 지원 없이는 대학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으며, 지역사회도 대학의 협조 없이는 지역발전동인을 상실해버릴 수 있다. 따라서 양자간의 결합을 항존화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필요하다. 제도 없는

결합은 일방적이기 쉽고 영속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학의 규모 및 질적 수준에 비하여 산업화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독일의 뮌스터(Münster)지역을 대상으로 대학과 지역사회가 어떠한 제도를 통하여 연계망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1996년 2월부터 8월까지 뮌스터의 대학들과 행정기관, 기업체 및 관련단체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외에도 꾸준히 신문을 포함한 관련자료와 연구문헌을 수집하였다. 특히, 연계망에 포착된 기관을 추적하여 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찾아내어 기능분석을 시도하였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결합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마련되지 못한 한국적 현실에서 본 연구는 대학과 지역사회간의 연계망을 조직하여 지역사회 및 대학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일조하리라고 본다.

2. 연구내용

대학은 고도의 知的 文化를 계승·전달하고 창조하는 혁신의 중심지이다. 따라서 대학은 학술적 이론과 방법을 계발하는 '연구'와 이를 전수하는 '교수'의 양대 기능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다. 또한 대학이 오늘날 상아탑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봉사도 대학의 주요기능으로 자리잡았다. 현대산업사회의 고도화와 더불어, 고급인력을 배출하는 교수기능이 큰 몫을 차지하게 되고, 대학은 지역노동시장의 공급자로서 지역사회 노동력의 질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부각되었다. 기술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기업이 대학의 연구성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대학의 지식 및 기술이전이 대학의 주요기능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또한, 대학이 지닌 도서관, 전자계산시설, 체육시설, 의료시설 등은 대학구성원의 이용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주민들에게도 문호가 개방됨으로써, 사회적 봉사기능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대학의 입지와 지역발전의 관계를 분석한 필자의 연구(1995)에서 대학의 3대 기능과 지역사회의 결합을 통한 지역발전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대학과 지역사회간의 연계망을 나타내는 제도(또는 기관)의 사례를 선정하고자 한다. 〈표 1〉은 그 연계망과 제도 및 파급효과를 나타낸 틀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분석이 본 연구의 내용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생교육과 재교육을 복합시킨 듯한 성인교육제도의 일종인 '中老年層大學正規敎科受講制度(Studium im Alter)'를 교수기능의 사례로 선정하였다. 이 기능은 아직 한국대학에서는 제도화되지 못한 것이다. 연구기능의 지역사회이전 기관으로는 대학연구

표 1.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와 제도의 사례 및 효과

대학의 기능	이전유형	연계제도(기관 또는 대상)의 사례		지역사회 발전효과
		대학	지역사회	
교수기능	인력이전	성인교육제도	중노년층	지식상승 재교육
연구기능	지식/기술이전	대학연구이전기구	기술이전센터 기술공원	기술혁신 기업의 창업
봉사기능	정보이전	도서관의 대출제도	주민 일반	지식·정보 유통활성화
종합행정업무	행정업무 교환	대학 및 지역사회 행정당국간의 협의기구		행정업무 조정 유대강화

이전기구(Abeitsstelle Forschungstransfer)와 기술이전센터 및 기술공원(Technologiepark)을 대상으로 하며, 봉사기능으로는 대학도서관의 주민이용제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과 지역사회의 행정당국간의 통로인 官·學 협의체의 운영을 고찰하였다.

Ⅱ. 뮌스터地域 및 大學 性格 概觀

1. 뮌스터地域

교회와 시청 그리고 대학건물이 도심부에 마주대하고 있는 뮌스터(Münster)는 유럽의 전통적인 중세풍의 도시구조를 지닌 中心地都市이다. 이 도시는 위도상으로 북위 51°58′, 동경 7°38′에 위치하며 독일의 중추적 공업지대인 루르지방을 포용하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의 북부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남북길이 24.4㎞, 동서길이 20.6㎞로 거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는 이 市의 면적은 302㎢에 달하며, 도르트문트-엠스 운하(Dortmund-Ems Kanal)가 저평한 독일 북부평야지대와 연결되면서 이 市域을 관통하고 있다. 삼림과 경지 및 호수를 비롯한 水域이 전체면적의 약 73%를 차지하여 전원적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답고 푸른 도시이다.

歷史都市로서의 뮌스터는 시대적 정치행정상황과 더불어 도시기능이 변천하여 왔다. 오늘날의 뮌스터는 행정 및 서비스都市의 전통 위에 大學都市의 성격이 중첩된 서비스기능도시이다. 1975년 市域이 확장되기 전에는 약 74㎢의 면적에 20만의 인구가 모여 살았으나, 주변농촌지역의 편입으로 약 6만의 인구가 증가됨으로써, 1993년 현재 이 시의 인구는 약 26만 8천명에 달하고 있다. 뮌스터市의 통계연보(1993년)에 의하면 약 12만의 고용인구 중에서 81%가 상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순수상업종사자의 비율은 15%에 지나지 않으며, 소위 4차 산업에 속하는 금융·보험·교육 등의 종사자가 우위를 차지하여 사무서비스도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대학생 수는 5만 여명에 달하고 교수를 비롯한 연구 및 사무직 고용자를 합한 대학고용인구도 약 1만 2천 여명에 이른다. 따라서 뮌스터는 대학의 영향력이 매우 큰 大學都市이며, 주민의 교육수준도 매우 높은 知的都市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시의 성격은 역사와 더불어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뮌스터는 중세기인 8세기말에 베스트팔렌(Westfalen)의 종교·정치·문화의 중심지로 등장하였고, 그후 한자동맹도시의 일원으로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14세기경에는 약 1만 2천 여명의 인구를 포용하는 독일의 대도시군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1726년 후작의 지위를 가진 主教 및 그 기관이 본(Bonn)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시의 일부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1816년 뮌스터는 프로이센의 베스트팔렌州의 수도의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上級의 行政機能이 배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州政府와 의회를 비롯하여 상급재판소와 이에 상응하는 기능들이 입지함으로써 전형적인 행정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고차의 행정기능의 입지에 힘입어 배후지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상업기능도 강화되었다. 산업혁명과 더불어 독일의 최대 석탄산지인 루르지방의 산업화는 교통망의 확충을 필요로 했다. 지역간을 연결하는 철도와 수로의 건설로 뮌스터는 독일의 주요교통체계에 편입되었다. 뮌스터는 1848년에서 1875년 사이에 쾰렌-브레멘-함부르크로 연결되는 철도노선에 접속되었고, 1899년에는 도르트문트-엠스 운하를 통해 북해와 라인강으로 연결되었으며, 1938년에는 중부 독일과 베를린으로의 운하 연결노선에 접속되었다. 제2차세계대전 전의 뮌스터는 행정 및 상업기능의 발달로 상위계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다(Tiborski, K, 1994).

그러나, 종전 이후 행정구역의 재편과 함께 중심성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가 새로이 탄생되고 주정부의 수도가 뒤셀도

르프로 이전함에 따라 상급행정기능이 이전되고 次下位의 행정기능만이 남게 되었다. 다행히 베스트팔렌-리페(Westfalen-Lippe)의 농업관련기관의 입지로 말미암아 농업서비스에 관련된 고용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뮌스터의 고용은 대부분 교육수준이 높은 관리와 연구자에 의하여 주도됨으로써 직장이 안정되고 구매력이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도시의 상권은 대체로 30㎞ 범위 내의 소도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극장, 박물관, 동물원 등의 시설이용범위는 반경 약 100㎞에 미치고 있다. 뮌스터는 대학도시인 만큼 20대의 젊은이가 약 23%를 차지하고, 65세 이상의 노년인구도 14%를 넘어서고 있다. 북부독일지방에서 신교도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뮌스터는 카톨릭 신도수가 주민의 62%에 이르러 주민의식은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뮌스터 大學

이 도시에는 뮌스터종합대학교를 위시하여 이론보다는 실제적용을 더 중히 여기는 4년제 전문대학과 예술대학이 자리잡고 있다. 1600년대에 신학교로 태동하여 1780년에 대학으로 승격된 뮌스터대학은 그후 신학, 법학, 의학으로 구성된 종합대학으로 성장하였고, 1902년에는 프로이센의 빌헬름 2세가 국립대학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이를 기념하여 1907년 베스트팔렌 빌헬름대학교(Westfälische Wilhelms-Universität)라는 교명이 확정된 이래 오늘날까지 그 명칭이 유지되고 있다. 통상 뮌스터대학교(Universität Münster)라고 불려진다.

이 대학의 학생 수는 1949년에 약 5천 여명이던 것이 1970년대의 교육개혁 이후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에는 무려 3만 9천 여명이 등록하였고, 1990년대에 이르러 약 4만 5천 여명의 등록생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뮌스터대학교는 독일 전체에서 뮌헨대학교 다음으로 학생수가 많다. 이들 학생들의 출신지는 이 州에서 약 80%정도이며, 이 州에 인접한 니더작센州에서 12%정도를 차지한다. 대학의 연구 및 강의 담당교수는 약 2600여명에 달하며, 그 중에서 학과 및 연구소의 소장직을 맡은 정교수는 600여명에 이른다. 이들 정교수들은 연구계획과 예산을 담당하며 일정한 기관을 운영해나간다. 이 대학교는 신학대학을 비롯하여 7개 단과대학에 21개 학부로 구성되고, 무려 250개 이상의 학과 및 연구소가 강의와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학제간의 연구를 수행하는 특별연구과정이 수없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Profile, 1997 & Jahersbericht, 1995 참조). 오랜 역사를 지닌 연유로 이 대학의 학과 및 시설이 도심에 산재하는 한편, 새로운 현대시설을 수용한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그리고 자연과학대학은 도시 주변부에 집단형을 이루고 있다.

1만 여명의 학생과 전문인력을 수용하는 4년제 뮌스터전문대학(Fachhochschule Münster)은 새로운 기술개발과 실제응용에 치중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기업과 직결되고, 지역경제발전의 자극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화학, 기계, 건축, 환경공학부 등과 경제·사회학부가 결합하여 11개 학부로 구성된 이 대학에는 110여 개의 학과 및 연구소가 있고, 여기서 활동하는 전문인력들이 기술개발과 기술이전에 기여하고 있다(Fachhochschule Münster, 1991-1993). 그 기능은 마치 거대한 기술연구원의 구실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대학은 뮌스터대학교 자연과학대학과 인접하여 상호교류가 활발하다. 이 두 대학 이외에도 예술대학을 비롯하여 100여 개의 각종 직업학교가 입지함으로써 직업훈련교육의 제조창 기능도 아울러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뮌스터는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한 학문 및 기술지식의 축적을 기반으로 知識産業都市로 발전할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 대학의 수많은 다양한 건물이 뮌스터의 경관을 지배하고 있는 도시구조는 뮌스터가 대학과 더불어 변모하여 온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처럼 뮌스터의 지역적 상황,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의 공업화 수준이 미약하고 대규모 공업이 존속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보수성향이 강한 서비스중심도시적 상황에서, 풍부한 연구 잠재력을 지닌 대학이 존속할 경우에, 어떠한 제도적 연계망을 통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결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Ⅲ.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망: 制度 및 機關 분석

1. 평생교육을 위한 大學正規敎科의 수강제도

1) 制度의 기능과 형성배경

대학의 교수기능은 정규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교수기능과 비정규 피교육자를 교수하는 특수교육기능으로 나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Studium im Alter'라는 제도는 일반성인교육의 개념과는 달리 중노령 인구집단에게 대학의 정규교과목의 수강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中老年層大學正規敎科受講制度'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 제도는 계속교육(Weiterbildung)과 성인교육(Erwachsenenbildung) 그리고 청강제도(Gasthörer)가 복합된 넓은 의미의 평생교육제도이다. 독일의 계속교육제도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 자신의 지식을 심화시키거나 추가로 보충할 수 있는 교육기회이다. 이 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단체가 그 기회를 책임지거나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기술심화 및 재교육훈련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계속교육은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에 이어 제4의 교육부문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모든 州政府에는 계속교육법이 운영되고 있다. 독일의 成人敎育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성인의 자질향상과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은 자아를 계발하고 지역사회발전에도 기여한다. 예를 들어, 1996년 뮌스터市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대학(Volkshochschule)의 여름학기 프로그램은 정치와 사회, 건강과 환경, 직업과 계속교육, 독일어와 외국어 강좌 및 문화와 여가선용 등의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Volkshochschule Münster Programm 1, 1996 참조). 이처럼 독일의 성인교육 및 계속교육은 정규교육을 마친 사회성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 이외의 기관에서 운영되는 사회교육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계속교육 또는 성인교육의 형태는 나라마다 다소 상이하다. 일례로, 뉴질랜드에서는 계속교육이 대학의 부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오클랜드大學은 계속교육센터(Center of Continuing Education)를 학내에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자기발전을 위해 교양 및 전문지식을 습득,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의 교원이나 외부전문가의 위촉을 통해 강의가 운영되며, 강좌는 단기와 장기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수강자는 강좌마다 소액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일정한 교육시간을 이수하고 시험에 통과되면 수강자에게 자격증서가 수여되며, 이를 통해 성인교육프로그램 종사자, 사회활동 봉사자, 여성재취업자 등이 배출되고 있다(The University of Auckland, 1995, 521-522). 반면, 독일 대학의 청강생제도는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학생의 신분으로 강좌당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강의를 수강하는 제도이다. 뮌스터大學에서 실시하고 있는 '中老年層大學正規敎科受講制度'는 연령이나 직업, 전공분야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개인적인 발전기회를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계속교육이나 성인교육처럼 사회교육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이와는 달리 대학정규교과목을 정규대학생과 함께 수강한다는 점에서 成人社會敎育과는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Kaiser, 1990, 17-57).

'中老年層大學正規敎科受講制度'가 형성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현대인의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구성원의 활동기한이 길어진 점이고, 또 하나는 지식사회·정보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구조조정기를 헤쳐나가

려는 의지의 발현이다(Breloer, Hg., 1996). 부언하면, 먼저 후자의 경우 중노년층이 정규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시점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과거 수강한 지식이 현재의 노동시장에서 그 효용가치가 하락하게 됨으로써, 변화된 사회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획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정치·경제·사회적 그리고 자연과학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지녀야만 이 현대사회의 시민생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사회·정보사회로의 사회변동이 주요배경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평균수명의 획기적인 연장으로 퇴직 후 여생의 기간과 노년층의 가족 없는 독신생활의 기간이 확대되었다는 점과 관련된다. 따라서 직업과 가족이 없는 만년을 지내는 노년층이 현대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이들에게 여가선용의 기회 및 인생역정에서 보다 심오한 통찰의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제3의 인생을 걸어가게 할 배려가 필요하였다. 또한 이 제도는 퇴직이 임박한 연령층에게 새로운 삶을 맛보게 함으로써 은퇴의 공포심을 덜어주고, 이를 통하여 사회참여에의 길을 제시해주기도 한다.

또한, 과거 대학교육의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50대 이상의 중노년층에게는, 청년기때 지녔던 고등교육에 대한 선망을 노년기에 이르러 이루려는 배움에의 열의를 풀어주는 교육기회의 균등적 의미도 이 제도 설정의 주요배경을 이루고 있다(Breloer, 1986). 도르트문트大學에서 中老年層을 위한 대학의 개방이라는 국제워크숍의 기록에 의하면(Kühlmann, et al, 1985), 중노령자 수강코스에 참여한 50-72세 사이의 250명 가운데 70%가 초·중등 및 직업학교 출신이었고, 나머지가 대학입학 자격증을 가졌거나 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한국에서 간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0년대 초에 독일에 파송되어 오늘날까지 대학병원 간호부로 근무하는 40대 말의 한 한국여성도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대학에서의 지식습득이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는 느낌이라고 필자에게 토로하였다. 반면에 대학생과의 연령차이가 크므로 학문적, 세대적 언어차이를 느끼고 있으나, 강의실의 분위기가 진지하고 엄숙하여 서로간에 유익한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이 제도가 고령화 사회의 추세와 사회구조의 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뮌스터大學 참여자의 구성과 수강 내용

이 제도가 1986년 뮌스터대학에서 실시된 이후 참여자의 호응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1986년 첫해 여름학기의 등록자는 213명에 불과하였으나, 1988년 겨울학기에는 두 배를 넘었고, 1992년 겨울학기에는 1천명을 돌파하였다. 1995년 겨울학기의 여자 수강생수는 985명이고, 남자는 622명으로 총 참여자수는 1607명에 달하였다. 〈표 2〉는 참여자의 연령별·성별 추이를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등록자수는 10년간에 무려 8배로 급증하였고, 남자 등록자의 증가율보다 여자 등록자의 증가율이 두 배 이상 높다. 이것은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길고 여가선용의 기회가 많은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연령별 참여율은 40대 이하가 6.9%에 불과하며, 70대 이상은 17.7%에 달하여 높은 연령에도 불구하고 교육기회를 적절히 누리고 있다고 보인다.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집단은 60대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50대도 약 24%를 유지함으로써 50 내지 60대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령별 變異는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나타낸다. 여성은 50대와 60대의 비율이 가장 높고 참여시기가 남성보다 빠르다. 남성의 경우, 60대가 6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은퇴 이후의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듯 하다. 참여자의 수강학부는 전 분야에 걸쳐 있으나, 30-40%가 신학·역사·철학 분야에 치우쳐 있다. 자연과학분야는 10% 이하로 비교적 수강자가 적은 편이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뮌스터市와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

표 2. Studium im Alter 참여자의 연령별/성별 추이

연령	'86 여름학기			'89 겨울학기			'93 여름학기			'95 겨울학기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40세 이하	0	0	0	0	4	4	5	9	14	12	11	23
40-49	0	19	19	3	76	79	17	58	75	23	66	89
50-59	16	38	54	14	123	137	45	247	292	92	292	384
60-69	56	42	98	135	157	292	269	281	550	379	448	827
70-79	24	14	38	16	28	44	69	82	151	109	149	258
80세 이상	3	1	4	2	7	9	1	14	15	7	19	26
합계	144	99	213	170	395	565	406	691	1097	622	985	1607

자료: 뮌스터대학 제공.

고 있다. 市거주자가 약 47%에 달하고, 나머지는 편리한 철도교통로가 지나는 뮌스터市의 인접군에 살고 있다.

이처럼 대학은 정규대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대학의 문호를 개방하는 제도로 인하여 대학과 지역사회는 교수기능을 통해서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있으나, 사회변혁기를 맞이하여 대학이 능동적으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본다.

2. 知識 및 技術移轉을 위한 제도

대표적인 공업국인 독일은 광공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더욱이 거대한 루르공업지대가 자리잡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는 공업화의 원동력이었던 석탄 및 철광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전통적 공업지대였다. 그러나 1980년대로 진입하면서 산업구조의 조정기를 맞이하여 산업재편현상이 나타났다. 석탄 및 철광산업의 고용자는 감소하는 대신 전자·기계·환경제품 생산을 포함한 첨단기술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유통·의료·지식산업 등의 생산자서비스산업의 고용자가 급속히 증가하였다(Glässer, et al, 1987, 98-108). 이처럼 공업분야에서 혁신을 통한 지식 및 기술집약적 생산품의 제조로 전향됨에 따라 지식과 경제를 이어주는 연계망의 구축이 정책의 우선 순위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지식 및 기술이전과 정보이전은 대학의 중요한 임무로 부각되었다. 특히, 전통적인 공업화지대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에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입지하여 있었으므로(약 51만 여개), 이들 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술개발없이는 경쟁력을 보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세계화시대의 경쟁 상황에서 발명-기술혁신에서 제품판매에 이르는 과정의 시간적 단축이 기업존속의 기반이었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하려는 이들 중소기업에게는 직접적이고 신속한 대학의 기술적 도움이 필요하였다. 이 절에서는 대학의 지식 및 기술이 어떠한 제도하에서 지역사회로 이전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제도분석에는 대학의 연구이전기관을 비롯하여 기술이전센터와 기술단지의 조직 및 운영을 살펴보려 한다.

1) 大學硏究移轉機關

1970년대 말경에서 1980년대 전반기에 걸쳐서 독일의 대학에서는 지역사회의 기업에 지식 및 기술이전을 촉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연구이전을 위한 담당 부서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뮌스터대학에도 연구성과를 실제 응용코자 하는 사람들과 접촉을 유도하고 조정하는 기구가 1984년에 설립되었다. 이 기

관은 대학연구처(Forschungsförderungsangelegenheiten) 내의 부서로, '大學硏究移轉室(die Arbeitsstelle Forschungstransfer: AFO)'이라고 불리며, 대학의 연구성과를 이용하려는 기업과의 접촉을 맡은 중앙기구이다. 이 부서는 박사급의 담당관(실장: Dr. W. Bauhus)과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학 외부의 협력자를 구하려는 대학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대학의 연구시설 및 연구관계자와 접촉하고자 하는 외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촉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연구이전실은 대학의 연구자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전시회나 발표회를 개최하여 연구 성과물을 대외에 소개하고, 나아가 연구의 후원 및 연구성과의 증진에 관한 제반문제를 상의한다. 또한 특수한 기구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값비싼 장비를 구입하기 어려운 기업 또는 개인에게 대학소장 장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이용기술을 전수하기도 한다.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구체적 예를 들면, 地理學部는 베스트팔렌-리페 지역 농업회의소와 공동으로 농작물의 생산효율화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를 계기로 지리학부 내에 '농업정보연구소'가 개설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각 학과 및 연구소마다 이전담당교수가 임명되어 있고 중점분야를 소개하고 있다(Transfer Handbuch der AFO, 1995 참조). 연구이전실에서는 뮌스터대학의 연구성과를 지역사회에 이전한 100대 과제를 11개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1994년에 발간된 뮌스터지역 연구목록집(Forschungskatalog Münsterland)에 의하면,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연구성과가 移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과 이전 과제 수를 보면, 지역사회 및 지역발전(18), 경제와 기술분야(18), 커뮤니케이션(6), 교통(4), 에너지 및 기후(5), 용수(14), 동식물(7), 건강 및 보건(5), 사회(9), 정치(6), 문화(8) 등으로 그 분야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2) 기술이전센터

대학과 지역기업이 기술을 매개로 결합되는 '기술이전센터(Technologiezentren)'는 기술이전을 통하여 분리신설기업(Spin-off unternehmen)을 후원하는 기구이며, 혁신활동을 한데 묶어서 기술혁신을 도모함으로써 시너지효과(Synergieeffekte)를 확산시키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다(Nordrhein-Westfalen, 1993, 190-191; Deilmann, 1995, 22-33).

기술이전센터의 설립 목적은 제조업 또는 생산서비스 분야에서 새롭고 기술지향적인 신생기업을 보육하고, 이를 통하여 종국적으로는 능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고용창출에 기여하는데 있다. 이 센터는 공간과 인력을 공동 관리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창업의 위험을 최소화하려 한다. 예를 들면, 사무실의 전화기기와 비서, 대화룸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전문 상담가를 고용하여 설립, 금융세제, 기업경영, 행정당국 또는 기업체와의 접촉을 효율성 있게 진행시킨다. 이처럼 기술지향적 기업을 위한 인큐베이터로서의 기술이전센터는 기술이전과 인적자원의 관리 및 평가를 비롯하여 연구지향적 투자유치와 신설분리기업의 창업, 재교육의 증진, 각종 노하우와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를 위한 연구봉사 등의 기능을 일반적으로 수행한다(Fromhold-Eisebith, 1992, 45-68; Deilmann, 1995, 98-102).

뮌스터에 설립된 기술이전센터는 뮌스터 技術庭園(Technologiehof Münster)이라고 이름지어졌다. 이는 쾌적한 환경 속에 자리잡고 있는 기술단지 또는 기술공원(Technologiepark)보다는 경관상으로 그 규모가 작다는 의미가 내포된 명칭인 것 같다. 기술센터의 설립배경은 현지상황과 지역 잠재력이 접목된 개개의 발전역사를 지니고 있다. 3차 산업 위주의 고용구조를 지닌 뮌스터는 거대한 대학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잠재력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센터설립의 직접적인 배경은, 1983년 뮌스터의 과학적 잠재력과 지역경제간의 유대를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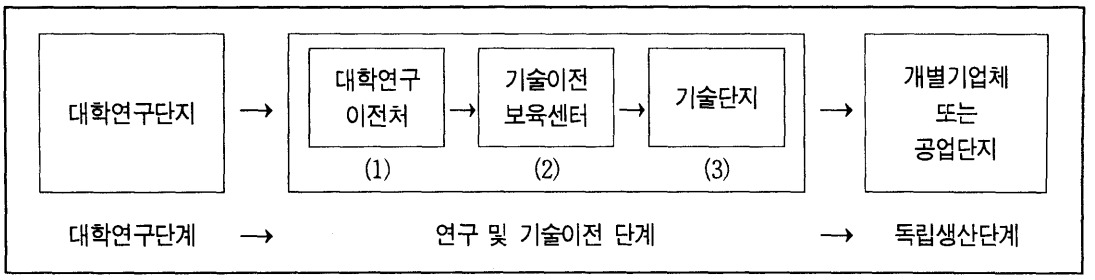
척시키려는 의도에서 뮌스터대학 주거 및 주택연구소(Institut für Siedlungs-und Wohnungswesen der Universität Münster)가 市의 경제촉진을 위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데서 찾을 수 있다(뮌스터市 발행 Wirtschaftsbrief 1990년 11월호 참조). 이에 따라, 이 市의 상공회의소와 수공업 협동조합, 뮌스터대학교와 뮌스터전문기술대학 그리고 뮌스터市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결성하여 1985년 주식회사 뮌스터 기술정원(Technologiehof Münster GmbH)이 설립되고, 1986년 7월에 Roxel街에 기술센터가 개설되었다. 그 후 1992년에 뮌스터대학의 자연과학대학과 뮌스터전문기술대학에 연접된 MendelstraßE에 새로이 건물을 지어 이전하였다.

이 기술센터의 배후에는 대학의 순수자연과학 연구소와 응용과학 연구소로 구성된 과학연구단지가 자리잡고 있으므로 대학의 연구 및 기술을 전수 받을 수 있는 최적장소로 평가되고 있다. 새로 이전한 센터의 이용면적은 약 14000㎡에 달하며, 양 대학의 연구이전담당기관을 비롯하여 사무실, 실험실, 대규모 학술대회개최가능공간 및 부대시설이 들어서 있다. 「뮌스터 기술정원 주식회사」의 1996년 입주현황에 의하면, 생물화학응용분야, 의학기술분야, 환경응용분야 및 전산정보처리분야의 기술연구기업과 경영자문 및 금융서비스 단체 등 48개 업체와 단체들이 입주하고 있다. 이들 창업신설기업들은 5년 정도의 보육기한을 지나면 이 기술센터를 떠나야 한다.

3) 技術團地

'技術公園(Technologiepark)'이라고 불리는 기술단지에는 기술이전센터에서 보육단계를 거친 기업들이 뮌스터에 장기적으로 정착하기를 원하는 혁신기업과 일반기술기업의 子會社나 연구지부 등이 입주하게 된다. 이들 기업들은 대학의 연구소 및 기술이전센터와 꾸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시험가동을 거쳐 완전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뮌스터에서는 '기술정원'에서 약 1㎞ 떨어진 곳에 '기술공원'을 조성하여 기술혁신기업을 입주시키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1990년에 계획된 기술단지 프로젝트가 6년간의 휴면기간을 지난 후 실현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뮌스터에서 발행되는 신문인 *Münsterischer Anzeiger*(1997년 5월 3일자)에 의하면, 뮌스터市는 뮌스터대학 자연과학센터와 기술이전센터의 북서쪽 지역에 技術公園의 건설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대학과 연계되는 신설혁신기업이 대학부근에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다. 약 14.5ha의 면적에 약 800만 마르크가 소요되는 기술단지에는 미래의 첨단기술산업공간과 그 부대시설이 갖추어지게 된다. 1997년 가을부터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1998년 중반기에 지상건축공사가 시작된다고 한다. 이 지역은 대학연구기관에 인접해 있을뿐만 아니라 뮌스터-오스나브릭 공항과 직결되는 고속도로가 형성되어 있어서 교통이 편리한 이점을 지니고 있다. 아마도 6-7년 이내에 세계 유수의 첨단산업체도 동시에 입주할 계획이므로, 2000년대로 들어서면 뮌스터의 경제는 굴뚝 없는 첨단산업의 입지로 말미암아 최대 호황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으로 뮌스터를 대상으로 대학과 지역사회간의 技術移轉過程을 제도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그림 1〉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3단계 技術移轉模型」을 제시할 수 있다. 대학의 과학연구기관이 집합된 科學公園(Wissenschaftspark)인 '大學硏究團地'에서는 기초 및 응용연구를 행하며, 硏究 및 技術移轉단계에서는 대학행정기구인 '硏究移轉處'에서 시작하여 혁신기업의 창업을 돕는 '技術移轉保育센터'를 거쳐서 실험생산 및 첨단산업이 입주한 '技術團地'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대학과 기업은 밀접한 유대관계를 지닌다. 기술이전을 마친 독립기업체는 독자적으로 입지하든지 일반공업단지에 입주하든지 간에 市場을 상대로 신제품을 대량생산하는 기업활동을 영위하게 된다. 이 모형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한국대학의 기술이전모형설정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림 1〉 대학의 기술이전과정 모형

3. 도서관의 기능과 지역사회: 제도적 분석

뮌스터대학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의 기능과 주립도서관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며, 중앙도서관과 학부 및 연구소에 자리잡은 도서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1824년 이래로 베스트팔렌州에서 출판되는 도서와 문헌은 의무적으로 납본되어 왔다. 1985년에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의 내무 및 문부성의 규정에 의하여 이 주에서 발간되는 출판물은 무료로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1500년대 이전에 인쇄된 초기 간행물로부터 최신의 CD ROM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문헌을 수집·보유하고 있다. 이 도서관은 학문연구에 필요한 문헌정보의 수집기능과 문화유산의 보존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특히 이 도서관의 특징은, 베스트팔렌州의 정신사에 관련된 가치있는 古書, 지도적 인물의 遺書·遺稿 그리고 古記錄物, 예를 들면, 이 주의 토지, 주민, 생산관계, 사회 문화적 사업, 기관과 기업의 설립, 도시·농촌 건설에 관한 각종 기록물을 수집·보관함으로써, 문화 및 지역문헌의 저장고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뮌스터대학 도서관은 지역문화정보와 세계의 학문적 각종 정보를 수집·저장한다. 1995년 이래로 이 도서관은 전자도서관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함으로써, 세계적 정보서비스센터의 구실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도서관은 대학구성원을 비롯하여 지역주민과 관청, 기업체에게 도서와 각종 문헌을 열람·대여한다. 이들 수요자는 CD ROM에 저장된 자료은행을 통하여 신속히 문헌을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뮌스터 중앙목록(Zentralkatalog Münster, ZKM)을 통해서 이 대학도서관에서 소유하지 않았거나 이미 대출된 도서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 대학구성원 이외의 방문자도 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하루 이내에 대출이 가능하다. 이용료는 무료이나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거나 대출기한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1995년부터는 도서관의 서비스가 개선되어 이용자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대출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원격대출(Fernleihe)제도는 이용자가 Fax로 대출을 주문하면 48시간 이내에 이 州의 전지역에 신속히 배달되는 속달주문체제(Schnellbestellsystem)이다. 이처럼 대학도서관은 학문연구에 관한 문헌정보를 제공하는 본원적 기능 이외에 地域發達史를 개관할 수 있는 특수한 자료은행의 역할을 하고, 지역주민에게 도서와 문헌을 대여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사회가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대학과 행정당국간의 연계망

知的 中心地로서의 대학은 지역사회의 구성체로서 행정당국과 끊임없는 접촉을 행하고 있다. 독일의 대학은 어느 정도의 자치를 누리고 있으나 예산을 책정하는 주정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이 입지한 지역사회의 행정당국과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양자는 대학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요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뮌스터대학과 뮌스터市간의 연계는 행정절차에 의한 경직된 연계와 서류화되기 이전에 상호의견을 교환하는 유연적 연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 전자는 행정당국의 사무적·일방적 통로라면, 후자는 대화적·쌍방적 관계이다. 본고에서는 대학과 市당국간의 대화록을 사례로 양자간의 유연적 연계양상을 살펴보려 한다.

뮌스터대학과 市당국은 19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된 광범위한 현안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다. 이들에 관한 주요의제는 대학이나 시당국이 서로 상정하여 협조를 의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음은 대화록을 중심으로 양자가 제기한 주요 의제만을 간추린 것이다[1].

가. 市당국의 대화제의에 의한 의제(일시: 1985년 10월 23일, 시당국의 참석자: 시장을 비롯한 28명, 대학당국의 참석자: 총장을 비롯한 26명)
  (1)학생 수의 증가에 따른 제반 문제(학생 수의 예측, 중장기 수용능력 및 市지역에의 영향평가 등)
  (2)전문직 종사자의 실업에 따른 문제(실업자 수의 예측, 뮌스터市에의 영향, 대학의 입학생 조정 등)
  (3)대학의 건설계획(건물 수요 예측, 주차장 계획 등)
  (4)교사의 재교육 및 직업인의 재교육
  (5)연구기능의 입지장소로서의 뮌스터 강화(연구 및 기술이전의 촉진, 기술이전센터의 존재기반 논의)

나. 1987년 7월 9일 회의를 위한 뮌스터대학의 대화제의 안건
  (1)학생수의 증가 문제
  (2)뮌스터의 외국인 대학생 문제
  (3)전문직의 실업문제와 계속교육
  (4)대학건물의 건축과 시의 주택정책

다. 1990년 4월 24일 시장이 대학총장에게 다음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제의와 개최시기(6월 7일)를 알림
  (1) 기술공원 및 대학연구공원의 개발문제
  (2) 대학시설(회의장 및 콘서트홀)의 입지선정과 관련된 도시계획 논의
  (3) 연구소 및 기숙사 입지선정을 위한 대학관련 건축대장 조정문제
  (4) 환경보전행사의 공동개최

라. 1992년 6월 19일의 대화 주제
  (1)외국인 대학생의 복지문제
  (2)대학시설의 이전 논의
  (3)市창립일 행사의 공동개최
  (4)기술공원의 입지 논의
  (5)학기내 통용되는 버스티켓제도 논의

마. 1996년 2월 6일의 대화 주제
  (1)대학과 지역발전 연계문제(기술 및 연구공원 계획에 따른 교통하부구조 개선책, 의학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공간수용문제 등)
  (2)학생식당 재건축 및 학교시설 재개발 문제
  (3)베스트팔렌 자유 350주년 기념행사
  (4)환경보전에 관한 공동대처문제
  (5)전자통신분야 개발에 관한 공동대처문제

이처럼 공식적인 대화를 위한 회의가 연중 2회 정도 개최되고 있으며, 주요의제는 졸업생의 취업동향과 재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 대학생의 복지와 대학의 물적 시설 개선, 대학과 지역사회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연구공원과 기술이전센터 및 기술단지의 개발, 각종 행사의 공동참여 문제 등으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다. 이와 같은 유연적 대처는 대학과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민주적 제도로 보여진다.

Ⅳ. 要約 및 結論

본 연구는 독일의 뮌스터지역을 사례로 大學과 地域社會가 어떠한 制度를 매개로 하여 연계망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제도는 양자간의 결합을 항존화할 수 있는 장치이므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제도가 운영되는 기관을 추적하여 이의 기능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뮌스터의 대학과 행정기관, 기업체 및 관련단체를 방문하여 자료수집과 면접조사를 행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대학의 교수, 연구, 봉사기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결합망을 형성하는 주요 기관을 선정하여 분석한 것이다. 교수기능의 人力移轉은 특수성인교육제도를, 연구기능의 知識 및 技術移轉은 대학연구단지로부터 독립혁신기업체의 탄생에 이르는 技術移轉過程을, 봉사기능의 情報移轉은 도서관의 대출제도를 사례로 선정해 연계망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대학과 市당국간의 행정업무를 조정하는 협의기구의 운영과 주요의제를 검토하였다. 이의 분석을 통한 이 연구의 잠정적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뮌스터대학의 특수성인교육제도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中老年層大學正規敎科受講制度이다. 이 제도는 성인교육 및 계속교육과 대학의 청강제도를 복합한 것으로, 성인이면 직업이나 교육수준에 구애받지 않고 대학정규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형성배경은 지식·정보사회로의 변동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려는 것이다. 이 과정이 1986년 뮌스터대학에 개설된 이후, 참여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50대와 60대의 연령층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였다. 참여자의 공간적 이용범위는 뮌스터시와 철도교통이 편리한 인접지역이었다. 우리 나라에는 아직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있으나, 구조조정기를 맞이하여 대학이 능동적으로 지역사회와 결합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긴요한 제도로 보인다.

2. 대학의 技術移轉過程은 대학의 연구단계에서 연구 및 기술이전단계를 거쳐 개별기업체의 독립생산단계로 진전되며, 연구 및 기술이전단계는 연구이전실(AFO)을 두어 운영되고 있으며, 뮌스터의 기술이전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 이전실의 기능은 대학과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쌍방의 접촉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연구성과의 지역사회로의 이전은 자연과학으로부터 사회과학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다. '뮌스터기술정원'이라고 불리는 기술이전센터는 뮌스터대학의 자연과학연구소가 집중된 과학연구단지에 입지하여 대학의 연구 및 기술을 전수 받을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이 센터의 설립배경은 大學都市가 지닌 우수한 연구인력을 뮌스터지역의 발전잠재력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이었다. 이 센터는 뮌스터의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단체인 상공회의소와 대학 그리고 市당국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합작품이다. 이 센터에는 생물·화학응용분야를 비롯하여 의학기술분야, 환경응용분야 및 전산정보처리분야를 주축으로 혁신기업의 창업을 지도하는 보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연구소 및 연구인력과의 접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대학의 연구이전실을 비롯하여 사무실, 세미나실, 기타 서비스 시설을 공동 이용함으로써 비용절감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기술이전센터'에서 보육단계를 거친 기업 또는 첨단기업들은 대학의 연구기능과의 접촉을 제도화함으로써 혁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술단지에 입주하게 된다. 뮌스터市는 혁신기업을 입지시키기 위해서 '技術公園'이라고 불리는 기술단지를 기술이전센터와 대학연구단지 부근에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이전센터와 기술단지도 대학과 연계된 기관임

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학의 연구기능의 이전을 위한 3단계 기술이전과정의 모형은 시발점에 서있는 한국대학의 연구 및 기술이전을 효율화하는데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대학의 봉사기능으로 택한 뮌스터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구성원과 지역사회 주민에게 봉사하며, 문헌정보의 수집·보관·대여의 기능과 함께 문화유산의 보존기능을 수행한다. 특기할 점은 지역주민에게도 도서와 각종 문헌을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도서관은 지역정보센터의 구실을 통하여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결시켜주는 매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4. 뮌스터에서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행정을 맡은 市는 긴밀한 유대 속에서 상호의견을 교환하는 유연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市행정당국과 대학행정당국 간에는 뮌스터市의 발전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로 대화창구가 마련되어 운영된다. 오랜 역사를 지닌 거대한 뮌스터대학의 성장이 바로 市의 성장이며, 대학 캠퍼스가 도심에서부터 교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대학건물의 건축과 관련된 문제가 우선적으로 제기된다. 그 외에도 상호 협조사항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견교환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유연적 제도가 한국에서도 시행된다면 지역사회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가 해외지역연구의 일환으로서, 제도 분석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간의 연계망을 살펴본 결과, 制度化는 兩者의 결합을 체계화·영속화하는 기본장치임을 확인하였다. 나아가서 지식·정보화시대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도 고찰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민주화의 정착을 위한 지방시대를 열어감과 동시에 사회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구조조정기에 지금과 같이 우리 대학이 지역사회와의 결합도가 결여된 채로 그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낙오의 길을 밟을 것이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발전하려면 독일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학은 그 地域에 제도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대학은 광역자치단체의 관할 하에서 상호연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대학은 지방화·세계화시대를 열어 가는 지식 및 기술정보의 총본산이며 지방발전의 잠재력이기 때문이다.

(附記: 이 논문을 진행하는 과정에 현지에서 협조하여 주신 뮌스터대학의 K. Engelhard 교수를 비롯하여 대학당국과 시청 및 여러 관련기관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분야의 많은 연구물을 수집하여 준 당시 뮌헨공과대학 지리학과에 재학 중이던 안영진 박사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한다.)

〈註〉

1) 1996년 2월에 뮌스터대학 총장실을 방문하여 뮌스터市와 대학행정당국간의 현안문제에 관한 의견교환에 대해서 면접조사를 행하던 중에 양 당국간의 대화록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학당국은 두 차례(1996년 2월 16일과 4월 25일)에 걸쳐서 대화록 사본을 복사하여 필자에게 우송하여 주었다. 그 중에서 일부 대화록의 주제를 소개한다.

〈參考文獻〉

朴英漢, 1995, "大學의 立地가 地域發展에 미치는 영향분석", 地理學論叢 제25호, 1-18.

AFO Universität Münster, 1994, Forschungskatalog Münsterland, Münster.

Breloer, G., (Hg.), 1996, Einblicke in die Wissenschaft, Studium im Alter, Bd.1, Waxmann, 1-5.

Breloer, G., 1986, "Persönliche Entwicklungschancen durch ein Studium in der nachberuflichen und

nachfamilialen Phase", in: Einblicke in die Wissenschaft, Studium im Alter, Bd.1, Waxmann, 7-17.

The University of Auckland, 1995, Calender, Auckland.

Deilmann, B., 1995, "Wissens-und Technologietransfer als regionaler Innovationsfaktor", Duisburger Geographische Arbeiten, Bd.15.

Fachhochschule Münster, 1995, Forschungsbericht 1991-1993, Münster.

Fromhold-Eisebirth, M., 1992, Wissenschaft und Forschung als regionalwirtschaftliches Potential?, Maas-Rhein Institut für Angewandte Geographie, Aachen.

Geipel, R., 1965, Soziälraumliche Strukturen des Bildungswesens, Verlag Moritz Diesterweg.

Geißler, C., 1965, Hochschulstandorte und Hochschulbesuch. Regionale Herkunft und Bildungswanderung der deutschen Studierenden, Einzugsräume der wissenschaftlichen Hochschulen, Hannover.

Giese, E., 1987, "Regionalwissenschaftliche Bedeutung von Hochschul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Giese, E.(Hg.), Aktuelle Beiträge zur Hochschulforschung, Giessener Geographische Schriften 62, Giessen, 25-50.

Glässer, E., et al. 1987, Nordrhein-Westfalen, Klett Verlag.

Kaiser, M., 1990, "Studium im Alter-ein neuer Lebensinhalt". Ergebnisse einer schriftlichen Befragung älterer Gasthörer und Gasthörerinnen an der Universität Münster, in Studium im Alter, Das Münsteraner Modell Münster, 17-57.

Kühlmann, et al.(Hg.), 1985, Seniorenstudium eine Aufgabe für Hochschulen, Dokumentation des III. Internationalen Workshops, Die Öffnung der Hochschulen für ältere Erwachsene in der Universität Dortmund 1984, Dortmund.

Ministerium für Wirtschaft, Mittelstand und Technologie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1993, Technologie-Handbuch Nordrhein-Westfalen, Düsseldorf.

Ott, T., 1993, "Regionale Effekte einer Neugründung der Universität Erfurt", Erfurter Geographische Studien, Bd.1, 161-182.

Stadt Münster, 1990(November), Wirtschaftsbrief, Münster.

Stadt Münster, 1995, Statistischer Jahresbericht, 1993, Münster.

Tiborske, K., 1994, "Münster-eine Hafenstadt an einer Wasserstraße", in: Münstersche Geographische Arbeiten, Bd.36, 149-174.

Universität Münster, 1989, Benutzungsordnung der Hochschulbibliothek der westfälischen Wilhelms-Universität(23, Juni 1989), Münster.

Universität Münster, 1995, Jahresbericht des Rektors der Universität Münster, Münster.

Universität Münster, 1995, Studium an der Universität Münster, Münster.

Universität Münster, 1995, Transfer Handbuch der AFO, Münster.

Universität Münster, 1995, Universitäts-und Landesbibliothek (Allgemeine Informationen), Münster.

Universität Münster, 1996, Forschung an der Universität Münster, Münster.

Universität Münster, 1997, Profile, Münster.

Volkshochschule Münster, 1996, Programm 1, Stadt Münster, Münster.